

無 없을 무 磁 자석 자 化 될 화 水 물 수

기적의 물

무자화수

1998년 4월 1일 제26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은상 획득의 세계 특허로 100% 믿어도 되며,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적의 물, 무자화수입니다.

‘보약 대신 좋은 물’ ... 물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홍미나(여, 52세) 씨는 약 1년 전 생소한 이름의 물, ‘무자화수(無磁化水)’를 만났다. 무자화수란 문자 그대로 자력이 없는 물이다. 홍 씨는 무자화수가 건강에 이롭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들이 앞다투어 건강에 좋은 물이라고 홍보하듯이 무자화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인의 권유로 꾸준히 음용하고 생활에서도 두루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 씨는 이내 무자화수의 홍보대사를 자청할 정도로 무자화수에 찬론자가 됐다.

홍 씨는 무자화수 사용 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자화수를 마시면서 느낀 몸이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피부였습니다. 피부가 맑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몸을 씻을 때도 무자화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자화수로 씻고 나면 마치 막 온천욕을 마친 피부처럼 피부에서 부드러움과 탄력이 느껴집니다.”

이후 홍 씨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무자화수로 바꾸었다. 홍 씨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할 때 무자화수를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가 훨씬 살아나고, 무자화수로 빨래를 하면 섬유질의 고유한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난다. 또 무자화수로 반려견을 목욕시키자 반려견 특유의 냄새와 피부병이 사라

졌고 잔디에도 무자화수를 뿌려주자 초록이 더욱 생생해졌으며,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도 무자화수를 주자 왕성한 생장을 보였다.

너무 신기해서 루센밸리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무자화수 제조 장치를 선물했다. 홍 씨의 지인은 농약 대신 무자화수를 살포하고 무자화수로 작물을 재배한 결과 병충해도 없고 결실도 놀랄 만큼 풍성해 무자화수의 효능에 대해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씨에 따르면 무자화수를 욕실이나 부엌 청소에 사용하면 물때가 말끔하게 제거되고, 무자화수로 야채를 세척하면 일주일 이상 싱싱함이 보존된다. 무자화수의 어떤 성질이 홍 씨의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자화수는 물 속에 자력이 녹아 있지 않은 물이다. 무자화수 미주지사장인 애니 성 씨에 따르면 무자화수의 물분자는 수돗물에 비해 3-4배 작아 체내 세포까지 침투해 세포의 재생을 돕고, 필터에 의해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고 물 속에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 세포 탄력을 증대시킨다.

또 수돗물, 정수된 물처럼 용기에 담아두면 1-3주 만에 물때나 미끄덩거림, 녹조 등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무자화수가 가지고 있는 항균력 때문으로 밀폐된 용기에 담아두어도 최저 3개월 이상 변화하지 않

는다. 이 항균력은 홍 씨가 경험한 것처럼 방이나 욕실, 주방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더욱이 무자화수가 흘러들어간 하수관에서는 하수관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하수관에 붙어있던 이물질 제거의 효과도 있어 물빠짐도 수월해진다. 용존산소량도 12-14ppm(일반 수돗물 5-6ppm)에 달해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무자화수는 건강에도 유익하다. 혈관내 이물질을 제거해서 고혈압, 저혈압, 뇌출혈 등의 각종 혈관질환에 도움이 되고 피부재생과 탄력성 강화에 효능을 보인다.

무자화수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유익함을 발휘한다. 식물 재배 시 농약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약 70-80%), 배관으로 흘러 든 무자화수는 배관 속 이물질을 제거해 배관의 수명을 늘리는 등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물이다. 또 한번 설치하면 추가 비용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자화수 생성장치이다.

무자화수 생성기는 주방, 욕실 등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 수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배관에 설치하면 집안 어디서나 무자화수를 상시로 사용할 수 있다.

가든그로브 <Cozy 코지 (아토미 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무자화수를 시음할 수 있다.

- ★자성이 없으므로 이온화 되어 92%의 항균력이 생긴다 (지진대비 비상으로 물준비에 좋다)
- ★미네랄이 풍부하여 생활용수에 매우 좋고 식물을 건강하게 농약없이 키울수 있다
- ★산소 용존이 높다 12~14 ppm
- ★물분자가 작아서 41 헤르츠 로 열전도율이 높고 음용시 체내 흡수력이 뛰어나다
- ★애완동물들의 피부보호에도 탁월하며 환경오염도 덜 시킨다

고혈압 당뇨병 등 난치병 환우들은 반드시 하루에 2리터 이상 음용하면 수일 이내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될 것이다.

